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3월 25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18장 18절

설교제목 :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일년 육 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접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18절)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신의 서원이 종료되었다는 표시로써 율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란 남자든 여자든, 일정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서약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을 한 자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서약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서약 기간 동안에서는 결코 머리를 깎을 수 없고, 서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 종료되었기에 자신의 머리를 손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언제, 어떠한 서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언제, 어떤 서원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진 본문이 있습니다. 행18:6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전투적으로 집단적으로 대항하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옷을 털면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 하는 유대인의 일반적 습관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원입니까? 이후로부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평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서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단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의 핍박이 거세지자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과거에 행하였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일년 육 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일년 육 개월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통해 자신을 주님의 사명에 확실하게 묶어 놓음으로써 결코 흔들려서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더욱 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서원은 무엇을 얻기 위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고린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바울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헌신이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 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일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서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좀 더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악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도, 주님처럼 나의 전부를 드려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써 우리의 삶속에서 반드시 금해야 할 독주와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끊어버리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단지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생명을 바쳐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례를 통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성경적인 서원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반드시 금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의 뜻에 헌신해야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